

20장 - 큰 영광중에 계신 주

- (1)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 (2) 한 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 되고 미쁘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 (3) 온 천지 창조 하시던 그 말씀 힘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 (4)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 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 멘

315장 -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 (1) 내 주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 (2)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뵈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 (3)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 (4)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7월 15일(수) 기도 담당 : 김방현 집사

2020년 7월 14일(화)

이른아침예배

인도 : 엄재광 목사

예배를 여는 말	인도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송	20장
기도	이철호 집사
성경봉독	요한복음 13장 1~5, 12~17절
설교	『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
기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찬송	315장
축도	설교자

☞ 오늘의 말씀 < 요한복음 13장 1~5, 12~17절 >

- 1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 2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 3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 4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 5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 12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 13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 14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 15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 16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 17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 참고구절: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0년 7월 14일(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코끝에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제와는 다른, 정직함과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 되게 하옵시고,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오직 예수님의 향기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영혼을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며 사랑과 삶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온전히 사랑하심이 또한 저희를 향한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사랑을 전함에 용기 내게 하시고 그 사랑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 19로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아직 추스르지도 못했는데, 경제적인 타격과 피해는 저희로 절망하게 만듭니다. 평생을 바쳐 일구었던 생업이 문을 닫고, 꿈을 품고 첫발을 내디뎠던 직장에서 나와야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생업이기에 온 가족의 안전과 꿈까지도 위태롭고 막막하기도 합니다. 다시금 생업에서 건강한 땀을 흘리며 믿음 가운데 비전을 품게 하시고 보람과 감사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사,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외교, 국방, 안보, 교육 전반에 은혜의 단비를 총만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의 간계(奸計)를 파(破)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가 어려울 때 더 어렵고 고통스러워하는 북녘의 지하교회와 백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에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인권이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며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새 예배당의 헌당과 새문안추모관의 헌관을 위해 온성도가 기도로 협력하게 하시고 걱정과 염려가 아닌, 기쁨과 감사와 간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담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협력하시는 부교역자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새문안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모든 이들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